

고춧잎 훑던 날

박 춘 추(시인)

무성하게 푸르던 고추
찬바람에 지쳐 흐느적거리네
농약 한 번도 주지 않고
풋 고추, 붉은 고추 예까지 왔는데
늦을세라 고춧잎 훑으니
양상한 가지만

옆집 할멈 농사만 짓다가
한푼 두푼 자식들에게 다 넘겨주었는데
이제 땅까지 내 놓으라고
마지막 훑고 있네

까맣게 탄 얼굴에 뼈만 앙상한 할멈
고춧잎장아찌 간장에 절이고
노부부 애간장은 소금에 절인다
곧 서리가 내리고 뽕뽕 얼겠지

고추를 재배하고 거두면 나머지 고춧잎까지 남기지 않고 훑어 장아찌를 담는다. 푸르던 고추가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다. 옆집 할머니의 생애를 은유한 이미지가 절절하게 비춰진다. 농사만 짓다가 자식들을 위한 일이면 넉넉지도 않은 살림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넘겨주었다. 한푼 두푼 넘겨주고 남은 것이 없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인 땅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자식들이 따로 살만한 걸 마련해놓지도 않은 채 받아가기만 하면서 고춧잎 훑듯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할머니 모습이다. 고춧잎 훑던 날은 앙상한 할머니 부부의 애간장을 소금에 절이는 날이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했던가, 곧 서리가 내리는 날이면 움츠린 기슴 뽕뽕 얼어 어디에서 사지를 펼 것인가 야속한 자식들이 눈에 밟힌다. (윤 제 철)

오늘은 한글날

張貞文(수필, 소설가)

오늘은 2016년 10월 9일 한글날이다. 지금으로부터 근 칠백년 전인 1443년에 우리 배달겨레의 글, 한글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고 21세기 현대세계의 사회문화 가운데서 언어 및 문자부문으로는 우리의 한글이 학계에서 단연 세계최고의 문자와 글로 평가 받게 되었다. 이런 훌륭한 글을 가진 우리 한국민족이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과 集賢殿의 학자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글은 과거 수백 년간 중국 漢文의 독점적 영향으로 輕視, 위축 되어왔고 또 20세기 日帝식민지강점기에는 일본어전용을 목적으로 실시된 朝鮮語抹殺정책으로 해서 거의 소멸의 위기까지 당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오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우리의 글을 소중히 간직하며 연구하고 발전시킨 우리의 문필선비님들과 한글학자들의 애국적 투쟁, 수고가 있었고 또 한글을 많이 써서 사회에 널리 전하며 나누게 한 한국의 문인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한국문단의 시인 소설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글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한없이 기뻐하며 긍지를 느낀다.

지난 해 가을에는 경북 경주에서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성대하게 열려 한국어에 관심이 있고 한글을 연구하는 세계의 언어학자들과 문인들이 찾아와 모여 한글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한글이 더 넓고 깊게 알려졌지. 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기하여 국제펜문학 한국본부에서 '한글, 문학을 노래하다'라는 표제로 산문집과 시집을 출판했다. 필자도 집필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나의 인생과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 금년 2016년 가을에는 제2차 세계한글작가대회가 경주에서 다시 개최된다고 했는데 그 귀추는 내가 아직 모른다.

나는 오랜 세월 미국과 캐나다의 영어권에서 철학과 신학의 학문을 연구하여 가르쳤고 문학의 글도 적지 않게 읽고 쓰면서 점점 더 우리의 한국말과 한글의 고귀한 가치,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말의 형용사와 부사는 다른 어느 나라의 언어보다도 더 풍부하고 이에 따르는 문장의 흐름은 더 美麗하다. 그래서 나는 그 영어권에 처해있으면서도 이 아름답고 뜻 깊은 우리의 말과 글을 손색없이 이어가려고, 아니 한글의 섬세 미려한 글의 美를 지켜가려고 계속 한국어 서적들을 읽었고 한국어의 문예지도 수년간 발행했으며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교민일간신문에도 많이 기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말과 글의 어감이 흐려지고 구사력도 무디게 된다.

북미주, 특히 L.A나 뉴욕,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는 한국인 교민인구가 수십, 수백만이나 되고 한국교민들이 모이는 교회들도 많아서 한국교민들은 교민 2세나 3세의 자녀들 외에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주로 상용한다. 그래서 수십 년을 북미주땅에 살아도 영어대화는 서툴고 영문읽기나 영어편지는 더 힘들어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민들이 영어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와 글인 한국어와 한글구사력도 고국에 있을 때보다 좀 무디다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교민들은 한글의 맞춤법 오류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하겠습니까’ 를 하겠습니까, 라고 쓴다. 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의 한글문법은 그러했기 때문이다. 말이나 글은 그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세월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말과 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언어도 서서히 잊게 된다. 말과 글을 잃는다는 것은 깊은 의미에서 인간자신을 잃는 것이다.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라고 현대철학은 가르치지 않는다. 말과 글을 조금이라도 잃는다는 것은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어휘와 문장, 그 어감에 예민해야 하는 문학예술인이 글의 감각이 약해지면 그 생명력은 없어진다.

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회목회와 대학교단 등 모든 공직에서 은퇴한 후로 우리의 글을 더 자유롭게 쓰기 위해 조국 한국에 귀국하였고 이 소원대로 기회가 주어져 나는 많이 글을 쓰고 있다. 우리의 한글을 나 나름으로 다듬고 꾸미기도 하여 문필작업을 이어간다. 우리의 말과 글을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가. 이젠 내가 고령 노년이 되었지만 오늘 한글날을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깊다.